

오구니누마의 습원 산책

전체 길이 800m의 산책로를 나아가면 오구니누마 습원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. 약 40만 년 전 네코마가다케(해발 1,404m)가 분화해서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, 산기슭 근처에 생긴 분화구에 물이 차서 이 호수와 늪이 형성되었습니다.

녹음이 우거진 풍경 속에 홍황철쭉(*Rhododendron japonicum*)의 붉은 꽃이 피어 초여름이 도래했음을 알립니다. 이어서 박새(학명: *Veratrum stamineum*)와 닛코원추리(*Hemerocallis dumortieri* var. *esculenta*)가 희거나 노란 꽃으로 습지를 수놓습니다.

여름부터 가을로 바뀌면서 밝은색은 사라지고 대지는 적갈색의 띠로 뒤덮입니다. 겨울이 되면 아이즈 지방에 눈이 계속 내려 풍경이 하얗게 뒤덮입니다. 봄에는 해발 1,090m의 습원에 구름이 낀 듯이 보이는 아침도 있습니다.

오구니누마 습원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 3곳은 우라반다이에서 차나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. 습원 주변의 산책로를 걸어서 한 바퀴 돌려면 약 30분이 소요됩니다. 오구니누마 늪과 우라반다이 외 구역을 잇는 5~6km의 하이킹 코스도 있습니다.